



太平二年丁丑七月廿九日古石佛在如賜乙重脩爲今上皇帝萬歲願

吏讀文이 섞여 있는 것이 注意된다. 文意는「(年月日略) 古石佛전다손을 重修하여 今上皇帝萬歲를 願하나라」라고 읽어

둔다. 太平二年丁丑은 公敎롭게 中國의 三國時代 吳의 年號로 二五七、隨末의 年號로 六一六이 있으나 여기서는 宋太宗의 太平興國二年丁丑(九七七)으로 본다. 太平興國을「太平」으로만 부른 例는「太平御覽」등에도 있다. 즉 高麗 景宗二년에 該當한다. 佛像의 모습으로 보아서 高麗初로 보는 것이 妥當하며 光宗때에는 光德、또는 峻豊이라고 建號하였고、十一年에는 開京을 皇都라고 하였으니 그 餘風이 景宗初까지 行하여「今上皇帝」라고 一般이 使用하였음도 妥當性이 있다. 그런데 銘文에 古石佛이 있었던 것을 重脩하였다는 말은 좀 異常하다. 이 磨崖佛에는 뒤에 손을 낸 것 같은 자취는 없어 보인다. 그 전에 보잘것없는 小佛像이 있었던 것을 此際에 다시 이만한 磨崖佛을 만들었다는 말인가 未審하다. 一九五六年에 廣州에서 出刊한「百濟舊都南漢秘史」中에 이 磨崖佛이 紹介는 되었으나 銘文을 다 읽어 놓지도 않았고 거기에 對한 考證도 不備하니 여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高麗青銅梵鐘의 新例(其一)

黃 壽 永

現存하는 高麗梵鐘의 大半은 日本에 流傳되어 있는바 그에 關한 論文

第一卷 第二號 通卷 二號

若干篇이 最近에 日本에서 發表되었다. 解放以來 國內의 新資料는 新羅가 一口、高麗가 十數口에 達하였으며 李朝의 것으로는 日帝末의 供出騷動을 冒免한 相當數가 保存되고 있다. 以下 새로 調査된 高麗遺鍾의 資料를 簡略히 記錄하여 두겠다.

(1) 頭正寺銅鐘(在銘)

高麗大學校 博物館 所藏

出土地와 保存經緯는 未詳인바 六·二五戰亂中 서울市內에서 火傷되어 黑赤色을 보이며 鍾體에 龜裂이 있고 下緣은 橢圓形으로 歪曲되었다. 龍鈕와 甬筒이 具備한 通式의 中鍾으로서 細技葉文의 上下帶가 있고 肩上四處에 乳廓과 그안에 九乳가 配置되었으며 乳廓間地 下面에는 撞座와 飛天紋이 交代하였는데 撞座는 連珠帶內에 八顆十三瓣의 蓮花紋이 彫飾되었으며 飛天은 合掌坐像인데 雙圈光背와 花文臺座를 갖고 있다. 肩上面에는 立狀花瓣帶가 周回하였으나 一部 缺落하였고 甬上에는 五珠가 裝飾되었으며 雙龍兩足은 爭珠의 形式을 보인다. 鍾體 乳廓下에는 諧書大字의 記銘이 陰刻되어 있다.

己亥正月廿九日

乃山村叫卯僧

兩親父母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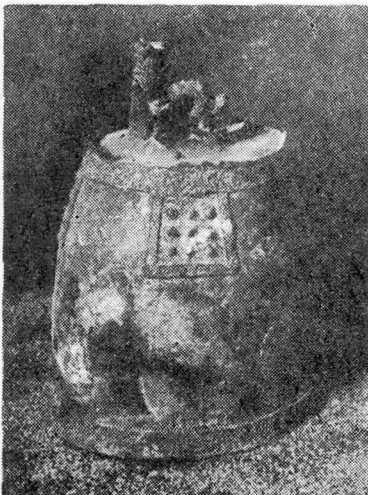
以夫妻發心

為鐃鍾成大匠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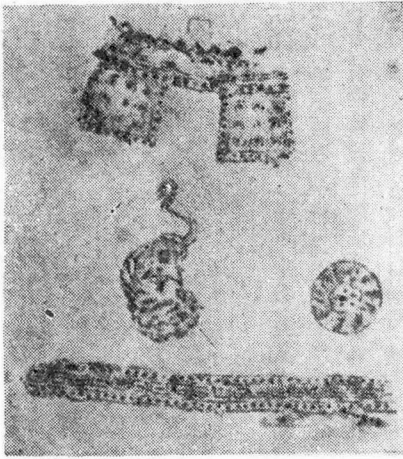
道梁州頭正寺

銘文에는 以爲와 갈은 吏讀가 混用되었는데 西紀十三世頃 高麗末의 作品으로 推定된 다.

總高三九cm 上徑一九·五cm 下徑 三三·五cm 와 二五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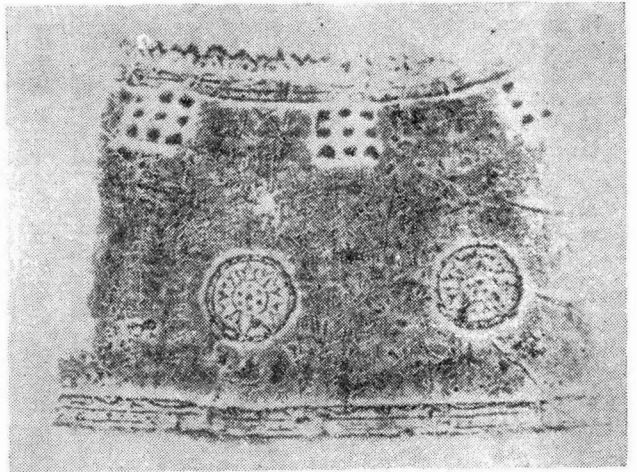
(1) 頭正寺銅鐘



(5) 大邱 張桂煥氏 所藏 小鐘

圓筒形에 가까운小品으로서 龍紐만이 없고 頂上의 甬筒을 비릇하여 各部樣式은 均整하며 彫飾 또한 流麗하다. 鍾肩에는 立狀蓮紋帶가 周回하였으며 上下帶는 雷紋을 주로하고 그 上下에 連珠文을 돌렸다. 다시 그 밑으로는 珠文方廓內에 圓座의 九乳를 넣었으며 鍾腹에는 乳廓間에 飛天(合掌坐像, 光背蓮臺座)과 蓮花紋圓形撞座가 交互配置되고 있다.

鐘高(甬除外) 一六cm
上徑 七cm 下徑 一〇cm
三cm 鐘厚 八cm



(4) 國立博物館(慶州)所藏 小鐘

兩「己酉十二月十七日」刻□□

鐘高 一七cm 下徑 一〇cm
上徑 七·三cm

(5) 大邱 張桂煥氏 所藏 小鐘 (無銘)

圓筒形에 가까운 소

熊川の 鋪石住居址

金 元 龍

〔註記〕 이 鍾은 一九五四年頃 慶北 高靈郡 牛谷面 四村里 所在의 寺址에서 灌漑工事中 金鼓 一個(徑約 一尺 無銘이며 圓圈 帶條 以外는 無紋)와 더불어 出土된 것이라고 傳한다. 鍾拓을 마련하여 朴敬源氏에게 謝意를 表한다.

韓國 先史時代의 家屋은 움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 圓形 또는 方形 구덩이에 簡單한 지붕을 씌운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러한 所謂 竪穴式住居址는 咸鏡北道 雄基, 平安南道 平壤附近, 慶南 金海 같은 곳에서 過去 그 存在가 報告되어 있고, 解放後 一九四九年에 北韓에서 發掘된 咸北 羅津 草島 遺蹟의 住居址는 長方形 竪穴로서 中央에는 爐址가 있고 竪穴 周邊에는 기둥이 꽂혔던 柱穴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地下에 土室을 판 움집은 現代에도 볼 수 있으며 人類學雜誌 三九卷 三號에는 一九二四年 當時 金海에 있던 冬期 덧자리 製作室으로서의 움집이 紹介되어 있다.

그런데 一九四九年에 本人이 慶南 熊川 子馬山 위에서 偶然히 發見한 原史時代住居址는 돌이 깔려 있어 注目된다. 이 住居址는 子馬山 위에 있는 貝塚의 西北方 山頂平地에 있으며 이와 좀 떨어진 곳에는 竪壙式 石室墓群이 있다.

이 住居址中의 하나를 보건대 그것은 地表에 露出되어 있으며 五米 x 四米의 方形으로 넙적넙적한 不整形花崗岩을 깔았고 그들의 表面이 平坦한 것이 注意된다. 그리고 北壁에서 南으로 二米 되는 位置에 一列로 돌을 깔아 그 平面을 東西로 兩斷하고 있고 다시 北壁에 다가 東偏하여 길이 約 三米의 突出部를 내고 있다. 이와 같은 突出部는 日本新石器時代의 鋪石住居址에서도 볼 수 있는 바이며 그것은 아마 出入口라고 믿어 지는 것이다. 日本의 住居址例에서는 그것이 圓形이고 돌은 圓形內部全